형태소 '엉'에 대한 고찰

송 상 조*

目 次

1. 들어가기
2. 형태론적인 면에서
2.1. '엉'의 결합 환경
2.2. 파생과 뜻에서
2.3. 굴곡과 뜻에서
3. 통어론적인 면에서
3.1. 풀이말에서
4. 마무리

1. 들어 가기

제주 방언(이하 방언)에는 '엉'이라는 형태소가 있다. 이것은 화석화(재구조화)된 것으로 여겨지는 몇 몇 형태들에서 재분석을 통해서 찾은 것이다. 이 '엉'은 '/영/'으로도 나타나는데, 이 '/영/'은 음운론적으로 제약된 변이형태이다.[1]

* 文學博士. 國語學.

1) 이숭녕(1985 : 34-35),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에서 '-영'을 분석하면, 서술격 '-이라'의 변모로 '-이여+ŋ'의 형성이어서 '-영'의 '-ŋ'이 또한 부사형성에도 쓰이는 '-ŋ'이다. 그 연결체는 물론 a) 어간 말음이 모음이며 '영', b) 어간 말음이 자음이면 '이영'으로 되었다고 한다.
강정희(1988 : 130),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에서는 '-이영'은 서술형 '이라'의 이형태인 '-이여'에 '-(이)ŋ'이 결합된 형태로서 선행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면 '-이영', 모음으로 끝나면 '-영'으로 음성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근 '이, 그, 저, 아무'에나, 사람 대이름씨 '나, 느 따위'에 '엉'이 결합되어 '이영, 기영, 저영, 아뭐엉(아무 ᄀᆞᆼ)[2], 나영, 느영 따위'가 되기도 하고, 같은 어근에 '엉, 엉'이 반복 결합되어 '이영저영' 따위로 되는 일도 있다. 또, 풀이씨 줄기에 이름꼴씨끝 '-(으)ㅁ'이 결합되고 나서 '엉'이 결합되어 '먹으멍' 따위가 되거나, 잡음씨 줄기 '이-'에 '엉'이 결합되어 '떡 이영 밥 이영'에서처럼 '영/이영'이 되어 도움 토씨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동작상 안맺음씨끝 '-암시/-엄시, -아시/-어시'에 다시 '-(으)ㅁ'이 결합되고서 '엉'이 결합되어 '먹엄시멍, 먹어시멍'도 된다. 그리고, 잡음씨 '이+(으)ㅁ'에 다시 '엉'이 결합되어 '책이멍' 따위가 되기도 하고, 그림씨 '하다(많다), 족다'[3]의 줄기에 '엉'이 결합되어 '하영, 족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재분석을 통해 얻은 이 형태소가 형태, 뜻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이나, 기능으로는 파생 접사나 토씨, 그리고 씨끝으로도 쓰여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이들에 대응되는 표준어의 뜻이 '이영, 저영, 기영, 아뭐엉(아무 ᄀᆞᆼ)'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가 되면 '엉'은 어찌씨 파생의 접사로 볼 수 있고, '이리, 그리, 저리'의 뜻이 되어, 대이름씨로 본다면 대이름씨, 어찌씨로 본다면, 어찌씨 파생의 접사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는 좀 다르지만 어찌씨 파생이라는 점에서는 '하영, 족영'도 그렇다. 대응되는 뜻은 '많이, 적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찌씨 파생의 접사나 씨끝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영, 족영'은 '*하+이, 족+이'에 '엉'이 결합된 것이다. 이것은 '*하 이, 족 이'가 어찌씨로 이미 파생된 것인데[4] 여기에 '엉'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그, 저'가 본래 대이름씨로도 볼 수 있는데 '이영, 기영, 저영'에 대응되는 뜻이 '이처럼, 그처럼, 저처럼'이면 이 때의 '엉'은 대이름씨

2) 방언에도 '아미엉(아무 ᄀᆞᆼ)은 3중 모음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둔다.
3) 방언에서는 '작다, 적다'를 '족다'로 나타낸다.
4) '족이'는 어찌씨로 쓰인다. '*하이'의 형태로는 어찌씨로 쓰이는 일이 없지만, '해'는 쓰이는데, 이는 '하+이'의 축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도 어느 시기에는 쓰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에 결합된 토씨이다.

그리고, '책이영' 따위에서는 잡음씨 줄기에 '엉'이 결합되었지만, 대응되는 뜻은 '랑, 와/과, 하고' 따위가 되어, 토씨 파생의 접사이다.

그런데, 토씨로 볼 수 있는 환경이지만 토씨로 보지 못하고 씨끝으로 보아야 할 때가 있다. 즉, 풀이씨 줄기에 이름꼴씨끝 '-(으)ㅁ'이 오고 그 뒤에 '엉'이 결합될 때이다. 이 때는 이름꼴씨끝 '-(으)ㅁ'의 뒤이어서 '엉'이 결합되는 자리는 토씨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은 '-(으)면서, -(으)며'[5]와 대응되기 때문에 그 뜻으로만 본다면, 어찌꼴씨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름꼴씨끝 '-(으)ㅁ'의 뒤에 토씨가 아닌 씨끝이 결합되었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그리고, '먹엄시멍, 먹어시멍'도 '먹+엄시, 어시+(으)ㅁ+엉'으로 분석되는데, '먹엄심, 먹어심'은 이름꼴씨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엄시멍, 어시멍'은 현재로선 씨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잡음씨 '이-'에 '-(으)ㅁ'이 결합되고 나서 '엉'이 다시 결합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엉'은 어떨 때는 접사로, 어떨 때는 씨끝으로 쓰여 다른 형태소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이름씨나, 어찌씨, 동작상, 잡음씨 따위에 결합된 '엉'을 깊이 따져 보면, 잡음씨 '이-'나 /j/의 뒤에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른바 '우향홉입구조'[6]의 여부에 따르면, 잡음씨 '이'에 결합된 '엉'이나, '-(으)ㅁ'의 뒤에 결합된 '엉'은 같은 구조로 쓰일 수 있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또, 뜻으로도 '동시성'과 '반복성'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이들에 쓰인 '엉'은 같은 형태소로 볼 수 있다.

---

5) 리이도(1990 : 38),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으며'는 '-으며- -으며 ᄒᆞ다'의 형식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상태나 동작을 잇달아 나열하여 '되풀이'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은 20세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며, 16-17세기에는 '-으명- -으명 ᄒᆞ다'와 같은 형식으로 쓰였다.
ㄱ. 舍利佛이 虛空에 올아 거르며 셔며 안ᄌᆞ며 누ᄇᆞ며 ᄒᆞ고(석보 6 : 23)
ㄴ. 암ᄌᆞ의 듀ᄒᆞ야셔 사미 동힝ᄒᆞ기 삼가며 인ᄉᆞ애 오명 가명 호ᄆᆞᆯ 삼가며 (계초 13ㄴ)
ㄷ. 斜補 긴 ᄃᆞ리예 오명 가명 ᄒᆞᄂᆞᆫ 行人(가사 28 : 222)
ㄱ.은 15, ㄴ.은 16, ㄷ.은 17세기의 예이다.

6) 김지홍(1982 : 34), 제주도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그리고, '-엉'의 형태는 방언에 또 있다. 씨끝 '-어'에 시상의 뜻을 나타내는 '-ㅇ, -ㄴ'과 결합된 '-엉, -언'과 지금 살펴 보려는 '엉'이다. 앞의 '-엉'은 '-어/-아 + ㅇ, ㄴ'으로 변이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상으로 대립되는 '-언/-안'이나, 음운론적으로 제약된 변이 형태 '-랑,-란, -그네, -네'도 있다.[7] 그리고, 이들은 뒤의 풀이말의 시상과 일치 호응하는 기능의 형태소이다. 그런데, 지금 살펴 보려는 '엉'은 뒤의 풀이말의 시상과 호응하는 일도 없는,[8] 파생의 기능이나, 씨끝 바꿈의 기능을 하는 형태소다. 이들은 다른 것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다양하게 쓰이는 '엉'에 대하여 형태, 통어, 의미론적인 면에서의 같고, 다른 점의 고찰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는 방언에서의 쓰임과 공시적으로 형태 분석적인 면에서와 통어 구성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2. 형태론적인 면에서

2.1. '엉'의 결합 환경

'엉'이 겉으로 결합된 자리는 대이름씨 '이, 그, 저, 아무', 이름씨끝 '-(으)ㅁ', 그림씨 '하-, 족', 그리고, 동작상 '-암시-, -아시-+(으)ㅁ'와 잡음씨 '이'의 뒤이다. 이 때의 '엉'은 어떤 형태소와 결합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잠깐 다루었지만, 먼저, 대이름씨 '이, 그, 저, 아무'와 '엉'의 결합은 '이영, 기영(긔영[9]), 저영, 아뭐엉(아무 ᄀᆞᆼ)'이 되는데, 이 때 '이, 그, 저, 아무'는 '이것, 그것, 저것, 아무것'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엉'이 결합되면, '이것+이+엉, 이거+이+엉(영)'이 되는데 '엉'의 사이에 형태소 '이'나 음소 /j/가 개입될 수 있는 자리이다. 여기에 '엉'이 결합

7) 필자는 이에 대해서 5편의 글을 발표한 일이 있다.
8) 김지홍(1982 : 33-34), 앞 논문.에서 '-당'이 '-단'을 짝을 이루나, '-멍'은 '-먼'을 짝으로 지니지 않는다고 했다.
9) 방언에서는 /의/가 /이/로 발음되기 때문에 /긔영/으로는 발음되지 않는다.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겉으로만 형태들을 분석하면, 이들 '영, 기영' 따위는 '이+(이)+엉, 그+이+엉'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그+엉'일 때는 '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기영'이 되는 점에서도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먹으멍, 먹엄시멍' 따위에 쓰인 '엉'을 분석해 내면, '먹으멍'은 '먹+(으)ㅁ+엉'으로, '먹엄시멍'은 '먹+엄시+ㅁ+엉'으로 '먹으멍'과 같다. 동작상 안맺음씨끝에 '-(으)ㅁ'이 결합되고, 거기에 '엉'이 결합된 것이다. 그러면, '이, 그, 저'에 결합된 '엉'과 동작상에 결합된 것은 다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으)멍'은 표준어 '-(으)면서, -(으)며'[10]와 대응되는데, 앞엣것은 '-(으)ㅁ+이 +어 +ㄴ +시+어'로, 뒤엣것은 '-(으)ㅁ+이+어'로 재분석된다.[11] 그런데, 방언의 '-(으)멍'은 '-(으)ㅁ+엉'으로밖에 분석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표준어에서는 '-(으)ㅁ'의 뒤에 잡음씨 '이'가 나타나는데, 방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원래는 방언에도 '이'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방언 나름으로 '이'나 '/j/'를 처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표준어의 분석에 따라서 '-(으)ㅁ+이+엉'으로 분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으)ㅁ+엉'이 '-으명'[12]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13]

---

10) 허웅(1975 : 588),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에서 '-(으)며'는 '나열, 첨가, 되풀이'를 나타낸다고 했다.

11) 서태룡(1988 : 221-225),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에서는 지속의 '-음', 서술의 '이-', 완결의 '-어', 그리고 존재의 '시-', 완결의 '-어'가 '으면서'의 구성요소로 재분석된다고 한다. 그리고, '-ㄴ'이 고유의미를 가지는 요소인지, '-으며'와 '-서'를 결합하기 위하여 유추나 형태음소적인 조건 때문에 들어 있게된 요소인지는 과제로 남겨둔다고 했다.
리이도(1990 : 178), 앞책. 19세기에 '-으면서'가 새로이 이루어진다. '-으면서'는 15세기부터 줄곧 있어온 '-으며-셔'의 형태소경계에 음운론적 요인에 의해 /ㄴ/이 삽입된 것이라고 했다. 의미는 '-으며-셔'와 마찬가지로 '동시 나열'을 나타낸다. 안맺음씨끝을 앞세운 예는 찾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12) 리이도(1990 : 38), 앞책.에서 16, 7세기 문헌에는 나타난다고 했다.

13) 배주채(1991 : 376-393), 고흥 방언 '-아' 활용형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김완진 선생 회갑기념 논총, 민음사.에서도 '가면, 마

그래서, 동작상 '-암시-, -아시-'에와 잡음씨 '이-'에 '-(으)ㅁ'이 오고 뒤에 결합된 '엉'도 '이, 그, 저'에 결합된 '엉'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책이영, 나영'에서는 '책+이+엉, 나+(이)+엉'으로 분석된다. '책이영'에서는 '이'를 찾는 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나영'에서는 좀 다르다. 그러나, '나영, 느영'에서도 '나+영'으로 분석되면, '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이'가 없이 토씨가 바로 결합된 것인가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름씨 끝소리가 닿소리일 때는 '이+엉'으로, 홀소리일 때는 '영'으로 나타난다. 이는 잡음씨 '이'의 속성임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하영, 족영'에서는 '*하+이+엉, 족+이+엉'으로 분석될 것으로 보인다. 즉, '족+이'가 쓰이기 때문에 먼저 '족이'가 되고서 '엉'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엉'은 어근에 바로 결합된 형태는 없기 때문에 '이'나 /j/가 있어야 하는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인 점은 형태소 '이'나 '/j/'가 앞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이다. 겉구조로만 보아서는 결합되는 통어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엉/영'을 같은 형태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하나는 이름꼴씨끝과 결합이고, 하나는 '이, 그' 따위와 결합이고, 또 다른 것은 사람 대이름씨와의 결합이거나, '이'나 그림씨 '하-, 족-'과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엉/영'이 결합되는 자리가 이름씨와 관련이 있어서 '이'나 '/j/'가 있을 수 있는 자리인 점도 있고, 또 '이'나 '/j/'는 동화되는 속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근의 뒤에 '이' 또는 '/j/'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뒤에서 다루어지겠지만, 통어적으로 모두 몇 가지 동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엉/영'을 같은 것으로 보아 둔다. 그리고, 방언 나름의 특징으로 해서 '엉/영'이 다른 것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엉/영'은 같은 형태소로 잡음씨 '이'의 뒤에 결합되는 것이지만, 방언에서는 '이'가 없어도 이름씨나, 이름꼴씨끝 '-(으)ㅁ'에는 결합되는 것으

그먼, 시끄먼, 들먼, 나먼' 따위가 쓰였는데, '이'가 없이 쓰여서 '면'에 대응되는 형태가 아닌가 한다.

로 보아 둔다. 이는 방언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표준어의 '-(으)면서'에서는 '이'의 뒤에 '어'가 되는데 방언에서는 '엉'이 되어 표준어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를 다시 더 분석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표준어의 형태와 맞추어 '엉'을 '어+ㅇ'으로 보아 둔다. 그리고, 'ㅇ'의 처리는 문제로 남겨 둔다. 덧난 음소로만 보기에는 모자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2.2. 파생과 뜻에서

1) ㄱ. 영 ᄒᆞ라.
   ㄴ. 저영 ᄒᆞ라.
   ㄷ. 기영(경) ᄒᆞ라.

위는 매김씨나, 대이름씨로 보는 지시어 '이, 그, 저'가 뿌리(어근)가 되어 여기에 잡음씨 '이'에 '엉'이 결합된 것들이다. 이에 대응되는 뜻은 다양하게 갈려 나갔다. '이것하고/과'가 본 뜻이지만, '이렇게' 또는 '이리', '저렇게' 또는 '저리', '그렇게' 또는 '그리'이다. 그리고, 위는 속뜻으로는 '기영만 ᄒᆞ지 말앙, 영 ᄒᆞ라'이다. '이 이엉'에서는 '이엉'에 '동시성'의 뜻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엉'에 대응되는 표준어의 형태는 'ㅎ게(하게)' 또는 '리'가 된다. 이들을 분석하면 'ㅎ-(하-)'와 '-게'나, '리'가 될 것이다. 'ㅎ-(하-)'와 '-게'는 앞엣것은 줄기이고, 뒤엣것은 씨끝이다. 그리고, '리'는 접사다. 이와 대응되는 방언 형태 '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는 문제가 되지만, 이 때의 '엉'을 표준어의 그 뜻과 쓰임을 중시해서 어찌씨 파생의 접사로 보아 둔다.

그러나, '리'와 대응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어찌씨를 파생하는 접사로 볼 수도 있지만, 표준어 '저리'가 꼭 어찌씨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장소나, 방향, 방법을 나타내는 대이름씨로도 쓰이므로 이 때는 '리'가 장소, 방향, 방법 대이름씨 파생의 접사도 될 것이다. '영, 저영, 경'이 '이쪽으로, 그쪽으로, 저쪽으로'의 뜻으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엉'은 이러한 형태소와 대응되고 있는 것이다.

2) ㄱ. 영(도) 가라.
ㄴ. 기영(도) 가라.
ㄷ. 저영(도) 가라.

위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로도 볼 수 있으나, '이쪽으로' 따위로 방향의 뜻도 있어서 대이름씨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엉'의 뒤에 토씨의 결합이 자유스럽지 못한 점도 있지만, '영' 그 자체에 토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대이름씨로 보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3) ㄱ. 영 ᄒᆞ라.
ㄴ. 이초록 ᄒᆞ라.

위는 '영'의 '이엉'과 '초록(처럼)'이 같은 뜻으로 쓰였다. 이 때는 '영'은 '방법'의 뜻이다. '엉'과 '초록'은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달리 쓰일 때가 있다. 같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이, 그, 저'에 쓰였을 때이다. 이 때는 '이, 그, 저'는 대이름씨로 쓰였다. 그런데, '이, 그, 저'가 매김씨로 쓰였을 때는 '엉, 초록'은 불완전 이름씨로도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뜻은 대이름씨로 쓰였을 때와 별 차이가 없지만 '이 것처럼, 그 것처럼'이 된다. 또, '엉'과 '초록'이 다르게 쓰일 때는 '이, 그, 저'를 제외한 다른 임자말에 쓰였을 때다. 아래는 '이'가 대이름씨로 쓰였으므로 대체된다.

4) ㄱ. 이영 큰 건 처음 보앗저. (이것처럼(또는 이렇게) 큰 건 처음 보았다.)
ㄴ. 이초록 큰 건 처음 보앗저. (이것처럼(또는 이렇게) 큰 건 처음 보았다.)

이처럼 '이, 그, 저'가 대이름씨로 쓰였을 때는 '엉'이나, '초록'이 쓰이면, 같은 뜻으로 대체된다.

5) ㄱ. 자의초록 부지런ᄒᆞᆫ 아이는 처음 보앗저.
ㄴ. *자의영 부지런ᄒᆞᆫ 아이는 처음 보앗저.

'엉'과 '초록'이 '이, 그, 저'에 쓰인 것이 아니므로, ㄱ.과 ㄴ.이 대체되어 쓰이지 않는다. 특히, '초록'은 매김꼴 씨끝 '-ㄴ, -ㄹ'의 뒤에서는 불완전 이름씨가 된다. '엉'에는 이런 일은 없다.

6) ㄱ. 갈 초록 ᄒᆞ단 안 갓저.
ㄴ. 훈 초록 ᄒᆞ연 ᄀᆞ만이 싯저.
ㄷ. *훈 영 ᄒᆞ연 ᄀᆞ만이 싯저.

위는 '초록'이 불완전 이름씨로 쓰인 것이다. ㄷ.은 안 된다. 그러나, '엉'도 '이, 그, 저'가 매김말로 쓰였다면 불완전 이름씨가 될 수 있는 자리이다. 이 점은 '초록'이 불완전 이름씨로 쓰인 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7) ㄱ. 이 영은 된다.
ㄴ. 저 영은 안 된다.

위에서 처럼 쓸 수 있다고 보면 '영'도 '이 것처럼, 저 것처럼'이 되어 불완전 이름씨라고 할 수 있다.

8) ㄱ. 책이영 연필이영[14]
ㄴ. 책이랑 연필이영

위는 '이엉'이 되어 토씨가 되었다. 이 때는 '랑, 와/과, 하고'의 뜻이다. 그래서 '엉'은 토씨의 파생 접사가 되었다. 이 때는 '랑, 와/과, 하고' 따위가 하는 기능과 뜻을 지니게 된다.

9) ㄱ. 아무ᄀᆞ(명) ᄒᆞ여도 안 뒈엇저.

이는 '아무+이+엉'의 축약으로 볼 수 있다. '아무ᄀᆞ(명)'은 뜻이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데 '아무하고, 아무와, 아무리, 아무렇게' 따위의 뜻이다. 그런데, '아무리, 아무렇게'에도 '동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0) ㄱ. 기영 저영 지네엄서.
ㄴ. 그럭 저럭 지네엄서.

---

14) 이숭녕(1957 : 37),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탐출판사.와 강근보(1977 : 23), 제주도 방언의 접속사 연구, 논문집 9, 제주대학.에서는 '이영'을 공동격으로 본다.
강정희(1988 : 130-132), 앞책.에서는 '-이영'이 '-광, -ᄒᆞ곡'과 같이 문장연결에서 유도된 것(구접속)과, 〔+단위성〕보다는 〔+나열성〕의 경향이 짙고, 〔+서술성〕과 〔+규칙성〕의 흔적을 내포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했다.

ㄷ. 그초록 저초록 지네엄서.

위에서는 ㄱ.과 ㄴ.이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때는 반복되어 어찌씨가 된다. 이 때도 '엉'이 어찌씨를 파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엉'과 '럭'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동시성'은 있다. 그리고, 가끔 ㄷ.의 형태도 쓰일 때가 있다.

11) ㄱ. 돌으멍 돌으멍 가라.
ㄴ. 울멍 시르멍 감저.

'-(으)ㅁ+엉'에서도 '기영 저영'의 형태가 나타난다. ㄱ.은 첩어를 이룬 것으로 '동시성'과 '반복성'으로 볼 수 있고, ㄴ.은 준첩어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ㄱ.은 '빨리 달려서', ㄴ.은 '울며불며'의 뜻에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2) ㄱ. 하영 먹엇저.
ㄴ. 족영 곶어 왓저.

위에서도 '하+(이)+엉'이어서 '엉'이 파생 접사로 쓰였다. 그런데, '엉'이 파생 접사로는 '이, 그, 저'와 '하-(많-)'와 '족-(적-, 작-)'에만 결합되어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립적인 어근에 결합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동시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영, 족영'은 '엉'이 결합될 수 있는 조건 '이'가 있어서 결합된 것으로 다른 '엉'들과는 뜻으로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2.3. 굴곡과 뜻에서

13) ㄱ. 먹으멍 가라.
ㄴ. 좋으멍 궂뎅 ᄒᆞᆫ다.
ㄷ. 시멍 웃멘 골아라.
ㄹ. 뚤이멍 아돌이엔 골아라.

위의 ㄱ.은 움직씨 줄기에, ㄴ., ㄷ.은 그림씨 줄기에 ㄹ.은 잡음씨 줄기

'이'에 '-(으)ㅁ+(이)+엉'이 결합된 것이다. 표준어와 대응되는 뜻은 모두 '-(으)면서, -(으)며'이다.

그런데, '엉'이 결합된 자리가 줄기도 아닌, '-(으)ㅁ'의 뒤이어서 이것을 씨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대응되는 '-(으)면서'에는 '-(으)ㅁ+이+어+ㄴ+시+어, -(으)ㅁ+이+어'[15]로 '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방언에도 '*-(으)ㅁ+이+엉'으로 재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먹으멍'으로 쓰이는 일은 없다. 그러나, '으면서'가 '동시성'을 나타내는데, '-으멍'도 '동시성'을 나타내는 점은 같다. 그리고, '먹는 일과 함께, 먹음과 함께, 먹음과 동시에'의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으멍'의 '엉'이 '동시성'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이 때는 이름씨의 속성도 발견된다. 그러나, 방언에서는 이름씨에 씨끝이 바로 결합되는 일이 있다. 의문법 씨끝 '-가/-고'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 현상도 방언의 한 특징으로 보면서 '엉'을 씨끝으로 처리해 둔다. 다만, 이 때의 뜻은 '-(으)면서, -(으)며'와 대응되는 것으로 본다.

14) ㄱ. 먹엄시멍 안 먹노렌 ᄒᆞ염저.
ㄴ. 먹어시멍 안 먹고렌 ᄒᆞ여라.
ㄷ. 먹어나시멍 안 먹어낫고렌 ᄒᆞ여라.

위는 동작상 '-암시-, -아시-, -나시-'에 '-(옴)+엉'이 결합된 것이다. 이 때는 안맺음씨끝에 '-(으)ㅁ+엉'이 결합되어 있어서 씨끝으로 처리한다. 이 때도 '-(으)ㅁ+엉'에 '동시성'은 있는데, '먹고 있음과 동시에', '먹었음과 동시에', '먹었었음과 동시에'의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동작상이 개입된 만큼 뜻에 차이가 있을 뿐 '으멍'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

ㄱ.의 뜻은 '먹고 있으면서(먹으면서) 안 먹는다고(먹고 있다고) 한다.'이고 ㄴ.은 '먹었으면서 안 먹었다고 하더라.'이고, ㄷ.은 '먹었었으면서 안 먹었었다고 하더라.'의 뜻이다.

15) 서태룡(1988 : 221), 앞책.

3. 통어론적인 면에서

대이름씨 '이, 그, 저, 아무, 나, 느'에 '엉'이, 동작상에 '-(으)ㅁ'이, 풀이씨줄기+'-(으)ㅁ'의 뒤에 '엉'이 결합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그것은 같은 성분으로 둘 이상 나타나고, 복합문을 이루며, 월이 확장도 된다. 복합문을 이루었을 때는 종속적 접속문은 되지 않고, 대등적 접속문[16]이나 내포문이 된다.

3.1. 풀이말에서

움직씨에서와 그림씨에서의 현상도 차이가 있을 때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나누어 다룬다.

3.1.1. 움직씨 줄기에서

'움직씨 줄기+(으)ㅁ+엉'일 때는 복합문 구성을 하고, 두 풀이씨 사이에는 '동시성'이 나타나고 동일 주어 제약도 있다.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두 풀이씨가 자리를 바꾸더라도 바른 월이 되는 것도 있다. 즉, 과정이 있는 풀이말은 자리를 바꿔 쓰지 못한다.

15) ㄱ. 자원 걸으멍[17] 헤천뵈레엄(보암)저.
ㄴ. !낭이 쓰러지멍 거꺼졌저.
ㄷ. 부름이 불멍 비가 왐저.

---

16) 홍재성(1987 : 126),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의 연구, 탐출판사.에서는 경쟁구문, 동반구문, 대칭구문으로 나누었는데, 방언 '엉'이 결합된 것은 이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정희(1988 : 112), 앞책.에서 등위연결화로 보고 있다.

17) 김지홍(1982 : 33-36), 제주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서방은 소설가 {-곡, -멍*} 시인이여.'는 {-곡, *-멍}에서 필자와는 견해가 다르다. {-멍}은 동일주어도 가능한 것으로 필자는 본다.
강정희(1988 : 133) 앞책.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러나, {-멍}에 '동시성'과 '반복성'이 있음은 필자도 동의한다.

위는 자동사 구문이다. 모두 '동시성'은 있다. 그리고, 복합문이다. 그런데, ㄱ.은 풀이말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뜻에 차이가 없는 바른 월이 된다. ㄴ.은 절차나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면, 월은 되지만, 뜻이 다르다. ㄷ.은 선행문과 후행문을 바꾸더라도 월이 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선행문과 후행문 모두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후행 풀이씨의 시상이 선행 풀이씨에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으)멍'이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동시성'과 복합문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ㄱ.에는 동일 주어 제약이 있다.

16) ㄱ. 자원 밥 먹으멍 말 ᄀᆞᆯ암저.
ㄴ. 자원 줌(율) 자멍 코(콜, 코롤) ᄀᆞᆯ(골)암저.

위는 타동사 구문이면서 접속문이다. 여기에도 '동시성'이 있다. 이 때에도 선행문과 후행문을 바꾸더라도 뜻에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동일 주어 제약이 있다.

17) ㄱ. ¦자원 밥 먹으멍, 영순 말 ᄀᆞᆯ암서라.
ㄴ. 자원 밥 먹는듸(-고), 영순 말 ᄀᆞᆯ암서라.

위의 ㄱ.도 바른 결합이다. 이는 '동시성'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두 주체의 행위가 말할이의 판단에 의해서 나열된 것일 뿐이다. 속구조는 '자원 밥 먹으멍 잇(잇엇)고, 영순 말 ᄀᆞ람서라.'이다. 그래서 '-(으)멍'의 지배 범위는 '잇고(잇엇고)'까지이다. 그래서, ㄱ.은 ㄴ.의 뜻으로 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으)멍'은 동일 주어 제약이 있는 형태소로 볼 수 있다.

18) ㄱ. 자원 떡을 치멍 먹엄저.

위의 ㄱ.에서도 복합문 구성이고, 풀이말들은 임자말과 부림말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이 때의 풀이말은 절차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절차나 과정을 나타낼 때는 풀이말은 공통의 부림말을 지닐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 때도 동일 주어 제약은 있다. 이 때의 뜻은 '-(으)멍'이 '-(으)면서'나, '-고나서'와 대응된다. 그리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풀이씨들도 서로 자리를

바꿔 쓸 수도 없다.

19) ㄱ. ?자왼 떡을 먹으멍 치엿저.

위의 '떡'은 '찌어야'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풀이말의 자리를 바꿔 쓸 수는 없다. 만일, '다른 떡'을 먹으면서 '찔 때'는 다르다. 이 때는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20) ㄱ. 자왼 떡을 치멍서라 먹엄저.
ㄴ. ?자왼 떡을 치멍서라 영순 먹엄저.

위의 ㄱ.에서는 '-(으)멍서라'가 '확실한 동시성'을 나타낸다. 즉, '떡을 찌자마자(찌어서 곧) 먹는다'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 때도 동일 주어 제약이 있다. ㄴ.은 어색한 월이 되었다. '-(으)멍서라'는 '-자마자, 곧, 금방'의 뜻인데, 동일 주체에서는 가능하나 다른 주체에게서는 '그렇게 빠르고, 정확한 시간'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21) ㄱ. 자의넨 싸우멍 튿으멍 살암저.
ㄴ. 가왼 울멍 시르멍 갓저.

위에서는 '튿으멍, 시르멍'은 앞의 '싸우멍, 울멍'의 뜻을 강조하는 뜻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싸우멍 튿으멍'도 보문으로 쓰였다고 볼 수는 있다.

22) ㄱ. !자의넨 튿엄저.
ㄴ. *가왼 시럼저.

위의 '튿으멍'에는 어휘적인 뜻이 있기는 하나, 뜻은 다르다. 즉, '닭의 털을 뽑다'일 때는 된다. 그러나, '싸움'을 '튿-'으로 쓴 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다. '시르멍'의 어휘적인 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 '울며불며'의 뜻이다. 그래서, '강조를 위한 관용적 표현'으로 본다. 그러나, 뒤의 풀이말과는 '동시성'을 지니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3.1.2. 그림씨, 잡음씨에서

그림씨나, 잡음씨 줄기에 '-(으)ㅁ+엉'일 때는 복합문 구성을 하고, '동시

성'이 있고, 동일 주어 제약이 있는 점 따위는 움직씨에서와 같다. 그러나, 두 풀이씨의 자리를 바꾸었을 때는 대립이나 과정이 없는 풀이말은 바꿔 써도 뜻에서도 다름이 없으나, 대립되거나 과정이 있는 것은 월로는 다름이 없으나, 뜻이 달라진다.

23) ㄱ. 자의 손은 크멍 넙(넓)나.
ㄴ. 술은 먹으난 양지가 붉으멍 푸리어졈저.

위는 그림씨 풀이말이 복합문으로 쓰였다. 이 때도 '동시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움직씨에서 나타난 현상들과 같다. ㄱ.은 풀이말의 자리를 바꾸어 쓰더라도 뜻이나 월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ㄴ.은 풀이말을 바꿔 쓰면 과정이나 순서가 바뀌게 된다. 이는 움직씨와 마찬가지다.

24) ㄱ. 자원 좋으멍 궂덴 골암저.
ㄴ. 자원 시멍 웃덴 골암저.

위와 같이 대립되는 그림씨 풀이말은 보문이 아닐 때는 쓸 수가 없는 특징을 지닌다. 보문에서도 대립되는 풀이말로 쓰였을 때도 보문의 풀이말의 위치를 바꿔 쓰면, 풀이말의 뜻이 대립적이기 때문에 월의 뜻도 대립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풀이말 사이의 '동시성'은 있다. 그리고, 보문에서도 선행문과 후행문이 복합문을 이루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25) ㄱ. 그 책은 조(좋으)멍 말멍 ᄒᆞ다.
ㄴ. 그 방은 너르(넓으)멍 말멍 ᄒᆞ다.

위에서도 '좋으멍 말멍', '너르멍 말멍'이 쓰였는데 보문 구성이다. 다만, 뜻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다, 별로 넓지는 않다'이다. 그러나, 복합문 구성은 되는데, '동시성'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 때 두 풀이말은 자리를 바꿔 쓸 수는 없다.

26) ㄱ. 이건 공책이멍 책이여.

위는 잡음씨가 풀이말로 쓰인 것이다. 역시 두 풀이씨 사이에는 '동시성'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자리를 바꾸어 쓰더라도 같은 뜻의 월이 된다.

27) ㄱ. 이건 책이멍 말멍 ᄒᆞ다.

이 때도 '별로 책답지 않다'의 뜻이나, 복합문 구성이지만, 뜻으로는 관용적이어서 '동시성'은 의문이다.

3.1.3. 동작상 '-(으)ㅁ+엉'에서

동작상 '-암시-, -아시-, -나시-'에 '-(으)ㅁ'이 결합되고, 그 뒤에 '엉'이 결합되어 통어범주를 이룰 때는 보문만을 이루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동작성이 없이 결합된 '-멍'과는 통어구성이 다르다. 동작상에 결합된 '-멍'은 '-멍'이 결합된 풀이말의 뜻을 뒤의 풀이말에서 부정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28) ㄱ. 감시멍 안(못) 가켄 ᄒᆞ여나서.
ㄴ. 가시나멍 안 가나고렌 ᄀᆞᆯ아라.
ㄷ. 촞아시멍 못 촞앗젠 ᄒᆞ더고.

위에서도 두 풀이말을 바꿔 쓰지는 못하지만, '엉'에는 '동시성'이 있음은 마찬가지다.

3.1.4. 토씨에서

'이엉'은 토씨로도 쓰이는데, 일정한 자리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문맥에 따라 자리를 매길 수 있다. 그래서, 도움 토씨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형태는 이름씨 뒤에 '이+엉'으로 된 것만 다룬다.

이러한 '이엉'이 풀이씨의 '-(으)ㅁ 엉'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풀이씨에서 다루었던 '-(으)ㅁ+엉'은 같은 성분으로, '동시성'을 지니고, 복합문을 구성하고, 서로 자리를 바꾸더라도 뜻에 차이가 없는 것도 있는 따위이다. 만일, 이러한 일이 '이엉'에서도 일어난다면 '엉'은 같은 통어구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29) ㄱ. 나영 가게.
ㄴ. 밥이영 먹엇저.

위의 ㄱ.은 겉구조로만 보았을 때는 동일 주어 제약이나, 복합문 구성은 드

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속구조로 보았을 때는 '함께 하는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0) ㄱ. 느영 나영 (혼디, フ찌) 가게.
ㄴ. 떡이영 밥이영 먹엇저.

위는 동반 구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성분으로 '느영 나영'이 쓰였고, 복합문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리를 바꾸더라도 뜻이나, 월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엉'이 쓰인 것은 '함께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도 '동시성'이 있다.

31) ㄱ. 느영 나영 가게.
ㄴ. 떡이영 밥이영 먹엇저.
ㄷ. 연필이영 책이영이여.

위의 ㄱ., ㄴ.의 구조는 같은 'NP+VP'이다. 그러나, 그 기능은 ㄱ.은 임자말로, ㄴ.은 부림말로 쓰였다. ㄷ.은 임자말에 도움 토씨가 결합된 뒤에 다시 잡음씨가 결합된 풀이말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다른 자리로 쓰였으면서도 '이엉'으로 연결된 말들은 같은 성분으로 쓰였고, 복합문을 구성하고, 또 '동시성'도 지니고 있다. 이들을 바꿔 쓰더라도 뜻에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엉'은 여러 기능으로 쓰이는데, '-곡'으로도 대체되는 일이 있다.[18] 그리고, '엉 ᄒᆞ-', '-곡 ᄒᆞ-'로도 쓰인다. 이는 문헌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도 일치한다.

32) ㄱ. 자원 뚤노롯이영 아돌 노롯(역할)이영 ᄒᆞ멍 살암저.
ㄴ. 자인 뚤노롯이멍 아돌 노롯이멍 ᄒᆞ멍 살암저.
ㄷ. 자원 뚤노롯이곡 아돌 노롯이곡 ᄒᆞ멍 살암저.

위의 ㄷ.은 ㄱ., ㄴ.의 뜻을 지닌다. 그러나, 이 때 이름씨는 '역할'의 뜻

18) 김지홍(1982 : 35), 앞 논문.
강정희(1988 : 133), 앞책.에서는 '-멍'과 '-곡'이 대체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을 지니고, '동시성'과 '반복성'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33) ㄱ. 가멍 오멍 ᄒᆞ멍 지네엄서.
ㄴ. 가곡 오곡 ᄒᆞ멍 지네엄서.

위의 ㄱ., ㄴ.도 마찬가지다.

3.1.5. 어찌씨에서

'엉'이 결합되어 임자말이든지, 어찌말이 되었을 때는 '이영, 저영, 기영, 암뮈영'이 된다. 이 때는 방향이나 방법, 그리고 정도를 나타낸다. 이름씨가 파생되었든, 어찌씨가 파생되었든, 어찌말로 쓰이므로 어찌말로만 다룬다. 이 때도 풀이말이나 토씨에서 있던 현상들이 나타나는 지는 의문이다. 즉, 동일 주어 제약이 있고, '동시성'을 지니며, 복합문을 구성하고, 동일 성분으로 쓰이며,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이는 월에서 임자씨나, 어찌씨의 기능이 풀이씨나 토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34) ㄱ. 영 가게.
ㄴ. 영 ᄒᆞ라, 영 ᄒᆞ마.

ㄱ.은 방향을, ㄴ.은 방법을 나타낸다. 이들에서는 복합문도, 동일 주어도, 같은 성분으로의 쓰임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그, 저'는 선택적 개념을 나타내므로 선택되지 않은 요소가 속구조에는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ㄱ., ㄴ.을 속구조로 바꿔 쓰면 아래와 같이 가정할 수 있다.

35) ㄱ. 기영 ᄒᆞ지 말앙 영 ᄒᆞ게.
ㄴ. 기영 가지 말앙 영 가게.

만일, 이러한 가정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때에는 복합문도 되고, 동일 주어 제약도 있고, 동시성도, 같은 성분으로 쓰임도 확보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 가게, 영 ᄒᆞ게'의 기저문은 위의 ㄱ., ㄴ.으로 볼 수 있다.

36) ㄱ. 하영 먹엇저.
ㄴ. 족영 먹으라.

위에서도 정도를 나타내는데, 속구조로는 아래와 같이 가정할 수 있다.

37) ㄱ. 족영 먹으컬 하영 먹엇저.
ㄴ. 하영 먹지 말앙 족영 먹으라.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복합문 구성과 같은 성분, 동일 주어 제약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동시성'은 확인할 수 없다.

38) ㄱ. 아명도 못 ᄒᆞ연 네불엇저.
ㄴ. 아명 ᄒᆞ여도 안 될로고.

위의 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의 뜻이고, ㄴ.은 '어떻게 하여도'여서 반복적인 뜻이 있어 '동시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9) ㄱ. 영(도) 가곡 저영(도) 가게.
ㄴ. 영(도) ᄒᆞ곡 저영(도) ᄒᆞ게.

위는 월의 확장은 되었지만, 물론 동일 주어 제약도 있고, '동시성'도 있다.

4. 마 무 리

'엉' 형태소는 재구조화된 형태에서 재분석하여 찾은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엉'이 결합된 형태는 지시사 '이, 그, 저', 인칭 대이름씨, 풀이씨줄기+'-(으)ㅁ', 그리고, 동작상 '-암시-, -아시-+(으)ㅁ'와 '하+이, 족+이'였다. 그런데, '엉'이 결합될 수 있는 자리는 잡음씨 '이-'의 뒤이었다. 그러나, 방언 나름의 결합 방식에 의해 '이-' 없이도 결합하는 일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석을 하면서도 표준어와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방언(고흥)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잡음씨 '이-'나 /j/가 꼭 있어야 하는 지는 의문으로 남겨 둔다.

잡음씨 '이+엉'과 '-(으)ㅁ+엉'은 어디에 결합되었든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엉'이 쓰인 형태들은 파생에서나 씨끝 바꿈에서도 같은 기능이나,

성분을 가지고 있었고, 통어론적으로는 주로 동일 주어 제약도 있었으며, 복합문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엉, 멍'은 '동시성', '반복성'의 뜻을 지니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엉', '-(으)멍'이 쓰인 복합문에서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는 '엉'과 '-곡'이 대체되는 점에서도 같은 형태소라는 방증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하이, 족이'에 '엉'이 결합되었을 때와, '이, 그, 저 따위'에 '엉'이 결합되었을 때도 뜻으로는 '동시성'과 '반복성'이 있었지만, '-곡'과 대체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위와 같은 것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다. 앞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객관성이 의심스럽다.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남겨둔다.

방언에도 표준어의 보급이 활발한 편이지만, 표준어에 없는 이 형태소 '엉'의 쓰임은 비교적 생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에서 '동시성', '반복성'의 뜻을 지닌 '-(으)면서, -고' 따위가 방언에서 잘 쓰이지 않는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방언에는 형태가 같은 '엉'이 복잡한 기능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들 형태를 분간, 파악하는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기제라도 제공할 수 있었다면 하는 바램이다.

참 고 문 헌

강근보(1977),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 연구", 「논문집」 제9집, 제주대학.

강정희(1988), 「제주 방언 연구」, 한남 대학교 출판부.

김지홍(1982), "제주도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리이도(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배주채(1991), "고흥방언 '-아'활용형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 선생 회갑 기념논총), 민음사.

서태룡(1988),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송상조(1992), "제주도 방언 '-ㅇ, -ㄴ'의 형태소에 관한 고찰", 「동아어문논

집』 제2집, 동아어문학회.

———(1993), "형태소 '-ㅇ, -ㄴ'과 이음씨끝의 호응", 『한뫼』 제6호, 제주도 중등 국어교육연구회.

이승녕(1985),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형태론』, 샘문화사.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탑출판사.